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

- 류의태 의료설화 사례를 중심으로

¹구현희 · ¹안상우

¹한국한의학연구원

Reality and Meaning of Medicinal Treatments Appeared in Medicinal Fables

- Based on Case Study of Ryu Ei-Tae Medicinal Tales

¹Hyun-hee Ku, ¹Sang-woo Ahn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finds an interesting fact that five symptoms (smallpox, postpartum pain, eye disease, swollen symptom and parasite infection) mentioned in Ryu Ei-Tae Medicinal Tales and his prescriptions (steamed rice, loess, soybean sprouts, cinnabar, radish, sesame oil and pork) were dramatized on the basi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knowledge in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study of experience-based medicinal literatures popular in the Joseon period, it is confirmed that the prescriptions are actually effective. Also it is inferred that popular diseases at that time were abscess, difficult baby delivery, postpartum pain and parasite infection, which were regarded as almost incurable diseases to ordinary people. These stories also showed destitution of common people who could not afford to buy medicines at that time. As shown in the Ryu Ei-Tae Medicinal Fable, many people might try various ordinary materials around them such as soil or nose wax. One of the outcomes of this study is that the fact that the tales mentioned common materials easy to get in the surroundings such as steamed rice, sesame oil, soybean sprouts or radish could be interpreted as care and consideration of medicinal doctors for ordinary people at that time.

Key Words : Ryu Ei-Tae, Medicinal Tales, abscess, difficult baby delivery,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knowledge in the Joseon Dynasty.

I. 서론

류의태 설화를 연구하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료설화’라는 점이다. 의료설화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매우 각색이 되어있고, 입으로 구전되거나 전설로 남아있으므로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텍스트에 담긴 병증 및 처방들을 한의학적 지식과 접목하여 관계를 파악해보면 당시 유행했던 병증들, 사회상, 다양한 처방의 한의학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류의태 의료설화 속에는 다양한 병증과 의외로 구체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해 연구의 필요성을 더해준다.

지금까지 의료설화에 대한 연구는 1983년 강진옥¹⁾의 연구를 시작으로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강진옥은 명의설화를 국문학적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구전명의설화와 문헌명의설화의 문제해결과정을 의미단위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김명수²⁾는 구전 명의전설을 치료방법 위주로 유형을 나누어 설화의 분류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지연³⁾은 명의의 등장여부에 중점을 두지 않고 치병의 의미가 포함된 의료설화를 ‘치병설화’로 정의하여, 전승양상과 삶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박수진⁴⁾은 「곽향정기산」에 얽힌 허준설화를 사례별로

1) 강진옥.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 출판부. 1983.

2) 김명수. 구비명의전설 연구. 경북. 경상대학교 석사. 1997.

3) 이지연.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경남. 인제대학교 석사. 2007.

4) 박수진, 이선아, 안상우. 곽향정기산에 얽힌 허준 설화. 한국한의학

접수 ▶ 2010년 8월 30일 수정 ▶ 2010년 9월 15일 채택 ▶ 2010년 9월 18일
교신저자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Tel 042-868-9442 E-mail answer@kiomre.kr

분석하여 명의 허준에 대한 민중의 희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를 살폈다. 명의 한사람의 설화를 ‘곽향정기산’이라는 세부적인 주제로 연구를 시도한 점은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다루어졌던 의료설화에 대한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경희⁵⁾는 구비설화가 아닌 문헌을 통해 내려오는 명의설화를 [神人形 명의], [異人形 명의], [義人形 명의]로 구분 체계를 제시하여, 각 명의군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명의관과 교훈적 면모를 분석하였다. 곽의숙⁶⁾은 가능한 많은 의료설화를 채집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구전명의 의료담과 문헌명의의료담의 존재양태를 살피고 의료설화의 사회문화적 함의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순차적 절차에 따라 의료설화를 정의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명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록 이전까지는 연구대상에 대한 DB가 잘 마련되어있지 않아 설화의 채록이 어려웠을 것이고, 연구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의료설화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에서 웹서비스를 통해 『한국구비문학대계』⁷⁾ 전집을 DB화하여 제공하고 있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한의고전명저총서 DB⁸⁾로 전통의약설화를 멀티미디어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그간의 어려움은 조금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⁹⁾

이와 맥을 같이하여 필자는 지난 줄고에서 명의설화를 통한 인물연구를 시도하여 산정군 신안면 산정마을에서 출생하여 당대 최고의 神醫로 알려졌던 柳義泰(1516년, 중종11년 출생)의 발자취를 의료설화를 통해 따라가 보았다. 그는 소설 동요보감에서는 허준의 스승으로 의학의 진보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사 허준에게 해부해보도록 한 살신성인의 의료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미하였으므로, 名醫 류의태에 대한 설화분석을 통해 陋巷人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자 한 시도였다. 류의태에 관련된 구비전승 의료 설화의 전승 편수를 모아, 류의태 설화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의 의료담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새롭게 분류하고, 의료설화속 류의태의 유적지와 등장지역을 살폈으며, 류의태의 의료인적 면모에 대해 연구¹⁰⁾하였다.

본고에서는 류의태 설화에 주로 등장하는 병증과 주제들에 주목하여 한의학적 입장으로 접근을 시도했다.¹¹⁾ 병증의 채택방법은 류의태 의료설화 중 그 병증에 대한 처방이 구

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된 경우를 위주로 연구하기로 한다. 류의태 설화에서 등장하는 희귀한 증상들의 병증을 추정하여 각각의 병증이 설화속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하며 류의태가 어떤 처방을 사용하는지를 살피고, 더불어 설화속에서 치료방법으로 쓰인 약재들이 실효성이 있는 처방이었는지를 같은 시기에 쓰였던 여러 의서들 속에서 찾아내 대조·분석해 보았다. 설화의 처방과 관련하여 비교할 의서들은 조선시대에 많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舟村新方』, 『壽世祕訣』, 『別抄單方』, 『醫本』, 『丹谷經驗方』, 『四醫經驗方』, 『意方合部』, 『袖珍經驗神方』¹²⁾에서 관련성을 찾아보았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당시 유행했던 병증들, 사회상, 다양한 처방의 한의학적 의미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류의태의 의료행적과 구원의 醫師象으로서 그의 면모를 구성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II. 류의태 설화속 병증과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

병증 1. 天門瘡

류의태 설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天門瘡의 증상은 머리에 구멍이 났다든지, 머리가 반으로 나뉜다든지 하는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다. 이는 다른 명의의 의료설화에도 곧잘 등장하기도 하는 증상인데, 禿瘡를 이야기하는 듯하다.

연구원, 2007.

- 5) 이경희. 문헌에 나타난 명의 설화의 유형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 6) 곽의숙. 한국 의료설화연구. 동의대학교 박사. 2008.
- 7)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Available from: URL: <http://lib.aks.ac.kr/Web/>
- 8) 안상우 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index.jsp>
- 9)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지. 2009. 16. p.381.
- 10)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지. 2009. 16.
- 11) 본고에서 논의할 류의태 설화의 텍스트 편수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21편과 그 외 거창문화원, 진주옛이야기 등에서 찾은 것 6편으로 총 27편이나 한 편에도 여러 단락의 설화가 담겨 있는 관계로 설화의 내용단락으로 구분지어 정리한 결과 총 44편의 이야기로 세분할 수 있었다.
- 12) 본 연구에서 의료설화와 대조해 볼 한의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번역한 것으로 입상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경험방이 실린 책 위주로 선정하였다.

독창은 머리에 생기는 癩頭瘡을 의미하는데, 이를 『東醫寶鑑』에서는 ‘나두창은 머리에 헌데가 생긴 것이 나병처럼 보이는 것’¹³⁾이라고 하였고 또 ‘白禿頭瘡’ 즉, 머리털이 빠지면서 헌데가 생기는 병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필자가 연구한 류의태 설화속에서 천문창이 발생한 경우의 설화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류의태 설화 병증이 ‘천문창’인 경우

제목	병명	치료약
강원도 포수 류의태	밤12시에 머리가 반으로 나뉘	낙반식 벽상토
무식쟁이 류의태	정수리에 구멍이남	대감집 흙굽어 밥에 섞어말려 술에 비벼 머리에 바름
유접장 아들 류의태	정수리에 구멍이남	대궐벽 흙굽어 코딱지에 섞어 환지어 가루내어 환부에 뿌림
효성의술 좋은 류의태	천문창	낙반식 벽상토
명의 류의태	천문창	벽상토에 밥을 섞어 병긋고 머리카락 남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료약으로 쓰이는 것은 落飯食壁上土 즉, 벽의 흙을 굽어 쌀밥에 섞어 환부에 뿌리거나, 술에 비벼 환부에 발라주는 처방이다. 실제로 이 처방에 유효한지는 알 수 없지만, 『東醫寶鑑』에서도 금창 및 연한 부스럼 등에 標上塵 즉, 오래 쌓인 먼지를 사용했던 것¹⁴⁾으로 보아 사실성 여부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여기서는 쌀밥과 흙에 중점을 두어 그 효용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 1687년(숙종 13)에 舟村 申曼이 지은 醫方書인 『舟村新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背疽와 여러 惡瘡으로 瘡根이 깊게 들어가 뽑을 수 없는 것이 점점 넓게 번져서 생명이 위태한 경우 찹쌀미음[粘米飲]에 누룩가루와 피마자를 같은 분량으로 넣고 붙인다.¹⁵⁾

좋은 개어 누룩가루, 숫쥐 똥을 가루로 만들어 짐으로 종기 난 곳에 붙인다.¹⁶⁾

인용한 문헌의 내용은 쌀 혹은 누룩의 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원래 쌀은 실제로 조선시대에 많은 처방에 함께 쓰였다. 복용하여 속병을 다스리는 데에도 많이 쓰였으나, 外治에도 곧잘 쓰인 약재이다. 쌀밥의 찰진 속성을 이용하여 약재를 문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겠지만, 쌀밥을 흙에 섞거나 숫쥐 똥에 섞으면서 미생물이 번식되고 누룩이나 푸른 곰팡이를 얻어 병을 치료하는 항생제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류의태가 살았던 당시에도 쌀밥은 여러 병증의 치료약으로 많이 쓰였는데, 外治의 경우 다

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발의 부종, 이름을 알 수 없는 열독이 생긴 경우 靑梁米로 떡을 만들어 뜨겁게 만들어 붙이고 차가워지면 갈아준다.¹⁷⁾

코피[衄血]와 토혈이 생길 때 찹쌀밥을 뒤통수[腦後]에 따뜻하게 붙이면 바로 그친다.¹⁸⁾

등에 종기가 났을 때[背腫] 찹쌀 3되를 자기 동이에 넣고 단오 전 49일, 찬물에 담가둔다. 하루에 두 번 갈아주고 흔들거나 부수지 않는다. 단오일에 이르면 꺼내서 포대에 가득 채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둔다. 쌀을 약간 꺼내 누렇게 볶아 가루로 만들어 냉수에 타고 약을 만들어 상처 입구를 싣는다. 비단실로 싸 움직이지 않게 하여 종기가 없어 지기를 기다려서 푼다.¹⁹⁾

惡瘡의 작은 고름에 나쁜 즙을 없앨 때 찹쌀밥을 만들어 찡기름을 발라 뜨거울 때 붙이고 식으면 바꾼다.²⁰⁾

腫이 있는 곳에 毒이 번지면 찹쌀밥이 뜨거운 때 찡기름을 발라서 붙여준다. 차가워지면 갈아준다.²¹⁾

凍瘡이 생긴 경우 오래 묵은 찹쌀로 떡을 만들어 불에 구워 따뜻하게 붙이고 차게 되면 새것으로 바꾸는데 차도 있을 때까지 한다.²²⁾

인용된 내용을 보면 外治의 경우 병의 증상들 중 瘡腫 치료에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데, 설화 속 치료 방법에 부합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13) 許浚. 諸瘡. 雜病篇 卷8. 東醫寶鑑. “癩頭瘡, 頭上生瘡如癩.”
 14) 許浚. 土部. 湯液篇 卷1. 東醫寶鑑. “標上塵: 靛보우희등글. 性微寒 (一云平) 無毒主中惡鼻疔小兒軟瘡又主金瘡 《本草》○一名懸龍尾又名烏龍尾 《入門》○須取去烟火遠高堂殿上者拂下篩用之 《本草》”
 15) 申曼.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56. “背疽及諸惡瘡, 瘡根深入不可拔, 漸漸蔓延至不可救者, 用粘米飲, 麩末 草麻子等分付之.”
 16) 위의 책. p.399. “諸瘡腫 … 好麩末, 雄鼠尿, 作末, 和涎付腫處.”
 17) 申曼.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41. “足浮腫, 靑梁米作餅, 乘熱付之, 冷則易之.”
 18) 위의 책. p.219. “衄血及吐血, 糯米飯溫付腦後則止.”
 19) 위의 책. p.244. “取糯米三升, 入磁盆中, 端午前四十九日, 以冷水浸之. 一日兩換, 勿令攪. 碎至端午日, 取出盛布袋, 掛于通風處. 取米少許, 抄黃爲末, 冷水調和膏, 裹于腫處. 包以絹絮, 不擾動. 瘡腫消乃解.”
 20) 위의 책. p.398. “小濃欲去惡汁, 糯米飯塗眞油, 乘熱付之, 冷則易之.”
 21) 위의 책. p.244. “腫處肆毒, 糯米飯乘熱塗眞油付之, 冷則易之.”
 22) 위의 책. p.405. “凍瘡, 陳倉糯米, 餅火, 炙溫付之, 冷則易新, 以差爲限.”

벽상토 즉, 흙에 관하여서도 그 효용을 살펴보았다. 실제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흙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黃土 정도로 생각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흙의 효용에 관하여서는 여러 의방서에서 발견되는데, 식용의 약재가 아니면서 內治를 하는 처방에도 많이 쓰였다는 점이 특이하다.²³⁾ 류의태 설화속에서는 外治로 사용된 경우만 등장하므로 외치로 쓰인 경우만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囊腫에는 地龍을 흙이 묻은 채로 가루 내고 진액을 섞어서 발라 준다.²⁴⁾

항문이 빠져나오는 경우에는 옛집 동쪽 벽의 흙 1되를 갈아 가루로 만들고 長芻莢을 가루로 뿔아 바른다.²⁵⁾

咽腫痺痛 잉어의 쓸개 20매에 부뚜막 아래에 있는 흙을 섞어서 목구멍 밖에 발라주면 즉시 효과가 있다.²⁶⁾

위에서 인용된 부분과 같이 전통의학에서는 흙이 다양한 치료방법에 사용되었고, 『東醫寶鑑』에는 따로 「土部」라는 항목에서 흙의 종류에 따라 약재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흙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세비결』²⁷⁾에서 발췌한 인용문에서 흙이 外治로 사용되는 경우, 瘡腫의 치료에 쓰인 것은 설화속 落飯食壁上土와 상관성이 매우 깊다. 설화에는 류의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으로 거짓으로 지어낸 치료법으로 등장하지만, 설화 구전자가 天門瘡 치료법으로 적절한 처방임을 염두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류의태 의료설화에 이 병증과 관련된 주제의 설화가 많은 것으로 보아 그가 瘡腫 치료에 능한 의원이었음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병증 2. 産後風

류의태 의료설화 중 산후풍 치료에 '실패'한 내용이 담긴 내용은 세 번 등장한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젊은 시절 구미호에게서 얻은 구슬을 간직한 후 총명함이 증가하고 명의를 된 류의태가 훗날 구슬을 잃어버린 후 총기를 잃고 건망증이 생겨 머느리가 산후 후유증으로 감기몸살에 걸렸는데 비너나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결국 머느리를 잃고 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명의 류의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보는 병, 역귀, 난산 등을 모두 고쳐놓고 정작 머느리의 산후풍에 좋다는 대나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머느리를 잃는다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유접장의 아들 류의태가 신령의 도움을 받아 명의를 되어 대국천자와 모친의 난치병까지 고쳤으나 정작 아내의 산후풍에 콩나물이 좋은 줄을 모르고 은침, 금침만 놓다가 아내를 잃는다는 이야기이다. 앞서 이야기한 설화에 등장하는 비너나물과 대나물은 모두 콩나물을 의미한다고 한다.

각설하고 먼저 산후풍에는 주로 어떤 약재들이 쓰이며, 콩나물이 어떤 병에 주된 약재로 쓰이는지 확인해보고, 설화속 류의태의 산후풍 처방이 사실적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 보겠다. 조선시대 여러 의방서에는 산후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

평소에 먹어야 할 음식은 豆淋酒이다. 【남녀의 일체 풍병風病과 산후의 일체 악성 질환 및 중풍을 치료한다.】²⁸⁾

산후의 온갖 병, 혹은 血熱로 餘血이나 水氣가 있는 느낌이 있는 것, 혹은 중풍이 매우 심하여 등이 뻗뻗하고 口噤인 경우, 혹은 번열이나 경풍이나 구갈을 앓는 것, 혹은 몸과 머리에 부스럼이 생긴 것, 혹은 몸이 가렵고 구역질을 하며 는

23) · 李昌雨.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壽世秘訣.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34. “무릇 더위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길 위의 뜨거운 흙을 대산, 생강과 함께 찧고 갈아서 달인 탕을 떠먹이면 즉시 소생한다.(路上熱土, 同大蒜 生薑 搗研, 煎湯, 灌之即甦)”

· 위의 책. p.101. “태독인 경우 말린 흙1덩이를 가루내어 진하게 달여서 황련을 달인 물에 섞어서 삼키게 한다.(用乾土一塊研末, 濃煎, 黃連湯調下)”

· 申曼.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328. “혈이 그치지 않거나 혹은 잡다한 질병이 그치지 않을 때는 회향을 태운 재와 서쪽 벽의 흙을 맑은 흐르는 물에 타 먹는다.(吐血不止, 或雜疾不止, 茴香燒存性, 而[西]壁土, 澄清水, 調服)”

·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意方合部.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312. “간지럽다가 통증이 있다가 하는 경우에는 赤土[붉은 흙]을 냉수에 타서 먹는다.(赤土冷水調服)”

· 위의 책. p.316. “風疹에는 赤土를 물에 타서 먹는다.(風疹 赤土水調服)”

24) 李昌雨.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壽世秘訣.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160. “地龍連土爲末, 津調傅之.”

25) 위의 책. p.228. “故屋東壁土一升研末, 長芻莢末搗粉之, 仍炙芻莢【更互熨之】”

26) 위의 책. p.154. “咽腫痺痛, 鯉魚膽二十枚, 和竈底土, 以塗咽外, 立效”

27)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지총서DB. 『壽世寶訣』 해제. URL: http://www.jisik.kiom.re.kr. “『壽世秘訣』은 일제시대에 李昌雨라는 醫員이 70여 년 동안의 의원생활을 통해서 그 효능이 확인된 각종 처방 800여개를 각 病門別로 분류 정리하고 설명을 가당한 것으로 저자 개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귀중한 경험방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책이다.”

28)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意方合部.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8. “豆淋酒 【治男女諸風, 産後一切惡疾及中風】”

을 곧추 뜨는 것, 혹은 수족에 마비가 오는 것, 머리가 얼얼 떨하고 眼眩인 경우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두림주를 먹는다. 두림주 만드는 법 : 대두(작은 연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바삭 볶는다) 3되를 병 속에 넣고 술 5되를 부어 1일 이상을 놓아둔다. 술 1되를 복용하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 조금 땀을 흘려주면, 몸에 윤기가 나고 곧 병이 낫는다.²⁹⁾

산후의 발열에는 콩나물을 진하게 달여 뜨거울 때 복용하고 땀을 취하면 역시 효과가 있다.³⁰⁾

인용문을 보면 당시 한의학 치료에 두림주, 콩나물 등이 산후의 병 치료에 유효한 약재로 쓰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림주는 검은콩 술을 말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大豆, 즉 콩이다. 이런 여러 의서를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콩나물은 원래는 한의학에서 성평, 미감, 무독의 성질을 지닌 약재로 『東醫寶鑑』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콩나물은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주로 오래된 풍습비로 근육과 힘줄이 당기고 무릎이 아픈 것을 낫게 하고, 오장이나 위 속의 결체를 없앤다 ... 황관은 생콩을 얹혀 기다리면 싹이 나오고, 이것을 취해 햇볕에 말린다. 약에 넣을 때는 약간 볶아 쓴다. ... 길이가 5푼 되는 콩나물순은 부인의 어혈을 흘려 버리므로 산부의 약에 넣어 쓴다.<본초>³¹⁾

산후풍에 쓰인 콩나물 처방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산후풍 치료 실패를 담은 세 가지 설화 이외에도 설화속에서 류의태는 원래 난산 및 부인병 치료에 능한 의원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난산 6편, 쌍둥이의 난산 1편, 유산 1편, 산후발 1편으로 모두 9편으로 능숙하게 치료를 해낸다. 이런 병증을 주제로 한 설화는 유독 류의태 설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의 주된 진료과목중 하나가 부인과 진료였을 것이라 짐작해 해주는 부분이다.

콩이나 콩나물을 이용하여 危重한 병을 치료한 설화 속 사례는 민중의 생활 주변에서 얻어진 하찮은 물건이나 약재일지라도 잘 활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향약의 학의 지혜와 교훈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증3. 눈 병

눈병은 류의태 설화속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단 한번 등장하는데, 그 약재와 製造法이 매우 자세하여 관심을 끈다. 눈병을 발병케 하는 주체는 ‘역귀’로 병을 상징하며, 류의태를 돕는 조력자로는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名醫인 편작이 등장한다. 청년의 갑자기 눈을 쏘는 병을 고쳐주지 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위기에서 편작이 나타나 병을 고칠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다음은 경상북도 월성군 현곡면 가정 1리의 김원락씨가 구연한 설화 중 <병증>과 <처방>을 언급한 부분이다.

<병증> 그 카메(그렇게 말하면서) 마 말짱한 눈을 마마 그 자리에 펍 쏟았뿌그던. [청중: 웃음] 쏟았뿌디, 한참 있디마는 마 지(자기) 손으로 이래 [두눈을 집어넣는 시늉을 하며] 조 여가(주이 넣어서) 꿈쩍 꿈쩍 이라그던. “내 병은 이긴데, 두 눈 안 빠지도록 하는 병을 저저 고쳐두가.” “예. 그레 한 달 말미를 조야되겠습니까.” “음, 한 달 말미를 주지.”³²⁾

<처방> 또 편작이 왔어. ... “근데 그게 댄 귀신이 아이고, 천귀라 그는 귀신인데. 나랑 명승을 다투다가 내인데 졌다. 패배 당해가주고 그 분함을 자네있는데 풀라 굶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을 갈쳐 주마. 요 오리 밖에 가마(가면) 암자가 있는데, 그 늦부처가 시 날이 있니라. 제일로 큰 부처 왼쪽 다리 밑에 決明朱沙³³⁾가 콩 쪄가리만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빠삭 뿌사가주고 가리를 만들어 있다가, 그 농을 눈을 이래 쏟을 직에 검어 쥐라꼬. 검어쥐만, 저 농이 항복할까라고. 항복을 하거들랑 그 걸 찬 물에 씻어가 갖다 이주만 괜찮으리라. 그러면 일은 다 된다.”이카그던. 퍼떡 깨이, 꿈이그던. ‘내 살았다’ 싫어가³⁴⁾

눈병을 고칠 약으로 편작이 제시한 決明朱沙는 수정과 같은 결정구조를 가지는 육방정계에 속하는 광물로 약명은

29) 李昌雨.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壽世秘訣.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79. “治產後百病, 或血熱, 覺有餘血水氣, 或中風困篤, 背強口噤, 或但煩熱總癢口渴, 或身頭皆腫, 或身癢嘔逆直視, 或手足頑痺, 頭旋眼眩, 此皆虛熱中風也. 豆淋酒 用大豆三升熬熟, 至微煙出, 入瓶中, 以酒五升沃之, 經一日以上. 服酒一升, 溫覆令少汗出, 身潤即愈.”

30) 申旻.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446. “又太菜濃煎, 乘熱服, 取汗亦效.”

31) 許浚. 穀部 湯液篇 卷1. 東醫寶鑑. “性平, 味甘, 無毒, 主久風濕痺, 筋攣膝痛, 除五藏胃中結聚 ... 黃卷, 是以生豆, 爲蘘, 待其芽出, 便暴乾取用, 入藥微炒 ... 卷葉長五分者, 破婦人惡血, 產婦藥中用之(本草)”

32)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1책. pp.186-201.

33) 약 이름으로 원명은 鏡面朱砂이다. 어린 아이들이 바람기가 있으면, 바람 소리 들리지 않는 산 속에 가서 이것을 다려 먹인다고 설화계보자 김원락씨가 설명했다.

34)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1책. pp.186-201.

鏡面朱砂로 혹은 朱砂로 불린다. 경면주사의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이 달며, 『東醫寶鑑』에는 정신을 보양하고 안정시키며, 오랫동안 먹으면 정신을 좋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심열과 심이 허한 데는 이 약이 아니면 없애지 못한다고 하였다³⁵⁾고 기록하고 있다. 눈이 어두운 것을 치료할 때 쓰이는 加味磁朱丸, 간이 상하여 눈이 어둡고 풍열이 생겼을 때 간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地黃元, 예맥 치료시 사용했던 點腎膏, 흙이 들어가 눈이 상한 것을 치료할 때 쓰였던 三光膏, 火眼과 난현풍으로 가렵고 아프며, 눈물이 나는 것을 치료할 때 쓰인 二百味花草膏 등에도 주사가 약재로 쓰였다.

물론 안질환에 걸렸을 경우 경면주사 이외에도 민간단방에서 미나리, 메주, 석류껍질, 杏仁, 覆盆子, 뽕나무를 태운 잿물, 닭의 쓸개즙, 鯉魚의 쓸개즙, 생 꿀, 마른 생강분말, 牛膝, 生地黃 등이 안질환 치료에 쓰인다.³⁶⁾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안질환의 약재들 가운데서 유독 경면주사가 약재로 채택된 이유는 설화에 등장하는 단순한 안질환이 아닌 눈병이 역귀에 의한 것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 전개상 류의태는 역귀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는 눈병을 치유시켜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귀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舟村新方』과 『丹谷經驗方』³⁷⁾에 수록된 경면주사에 대한 설명이다.

주사는 감미로 진심양신의 효능이 있어 사기를 몰아내고 잡귀를 죽이며 혼백을 안정시킨다.³⁸⁾

일체 눈 질환에는 목적을 손톱으로 문질러 가루를 내고, 주사를 가루내어 갈아서 같이 넣고 이슬로 환약을 거저씨 만하게 만들어 매번 한 알씩 눈 안에 넣는다.³⁹⁾

주사는 정신을 기르고 혼백을 편안하게 한다. 오래 복용하면 신명神명이 통하게 된다. 또한 심열과 심허는 이것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⁴⁰⁾

즉, 주사는 잡귀를 몰아내며, 혼백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일체의 눈 질환에도 약재로 쓰이는 재료로 쓰인다는 것이 확인된다. 『동의보감』에도 ‘朱砂는 정신을 보양하고 안정시킨다. 오랫동안 먹으면 정신을 좋게 한다.’⁴¹⁾라고 하였다.

병증 4. 붓는 병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이민호씨가 구연한 설화에서 류의태는 왕후의 병을 고치기 위해 대궐로 불려가게 된다. 왕후의 병증은 다리 붓는 병이었는데 역시 류의태는 왕후의 병을 고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서울로 간다. 여기서 왕후가 걸렸다고 하는 ‘다리 붓는 병’은 ‘부종이나 각기’로 볼 수 있는데, 피부와 연부 조직에 부종이 발생하면 임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푸석푸석한 느낌을 갖게 되며, 누르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움푹 들어간다.

몸이 붓는 경우가 浮氣, 浮腫, 脚腫, 水氣, 脹滿, 水鼓 등 매우 다양하므로 왕후가 몸이 부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자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얼굴이나 손발 등 특정부위가 붓는 정도로 짐작해 보면 좋을 듯하다.

처방을 알지 못한 까닭으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위기를 안고 서울로 가는 길에 류의태는 조치원을 지나다가 어느 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다음은 설화의 일부이다.

가마이 들어본께, “헤이, 서울 왕님네 마누라 병이 들어갔고 있는데, 그 병은 낫게 해 주어도 죽고, 낫게 해 주지 못해도

35) 『東醫寶鑑』 養精神安魂魄久服通神明又云心熱心虛非此不除細末水飛取一錢蜜水調下<本草>

36) · 申曼, 안상우 외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06. “눈의 상하 안검의 가장자리가 빨갱게 짓무른 경우는 미나리[水芹]를 달인 물로 씻어준다.(眼上下絃赤爛, 水芹煎水洗之.”

· 위의 책, p.206. “外物이 떨어져 눈에 들어간 경우는 뽕나무를 태운 잿물로 눈을 씻으면 좋다.(以桑灰水洗眼爲好.)”

· 위의 책, p.206. “눈의 상하 안검의 가장자리가 빨갱게 짓무른 경우는 잉어[鯉魚]의 쓸개즙을 말라주면 신효하다.(鯉魚膽塗之, 神效)”

· 李昌雨, 안상우 외 6人 共譯, 國譯 壽世秘訣,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161. “먼지와 같은 걸고 검은 물건이 눈에 들어간 경우는 메주37알을물에담가두었다가눈을씻고보면바로나온다.(豆豉三七粒, 浸水, 洗目視之, 卽出)”

· 위의 책, p.160. “눈물이 그치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석류 껍질을 물에 넣고 달여 눈에 넣어준다.(石榴皮, 煎水點目)”

· 위의 책, p.158. “눈이 갑자기 사물을 보지 못할 때는 생 꿀을 눈에 바르고 하늘을 보고 누워서 만나절 있다가 씻어 주는 것을 하루에 1번 한다.(以生蜜塗目, 仰臥半日, 乃可洗之, 日一次)”

37) 연대 작자 未詳, 조선시대에 쓰인 전통의약지식을 담고 있는 단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방서.

38) 申曼, 안상우 외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305. “朱砂味甘, 鎮心養神. 馱邪殺鬼, 安魂定魄.”

39) 위의 책, p.349. “治一切目疾, 以木賊, 擦取爪甲末, 同朱砂末, 研勻入露水, 作丸芥子大, 每一丸, 點入目中.”

40) 未詳, 안상우 외 6人 共譯, 國譯 丹谷經驗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7. “朱砂 養精神安魂魄, 久服通神明, 又云心熱心虛非此不除, 細末, 水飛取一錢, 蜜水調下.”

41) 許浚, 神, 內經篇 卷1, 東醫寶鑑, “朱砂 養精神安魂魄久服通神明”

죽게 된다.” 이카거덩. ‘그 이상하다 참.’ 그 소리 듣고, “그래, 그럼 무슨, 이사람아, 그러면 거 문 소리고?” 켜거덩. “그 떠 기 없다. 아무 것도, 그거 뭐, 빙 그기 고치기는 쉬운 데, 그거를 모르고 안카나. 참 막 각처 의원들이 전부 모여 갖고 시방 난린데, 그것 떠 것 아무 꺼도 없고 무시를 세 개 만 아 진을 내서 먹이만 대번 낫는 거, 그걸 모르고 전부 안 카나?” 이카거덩. 그카이 마 고마 온데 간데 없어.

들려온 말소리를 정리해보면 서울 왕후의 병은 낮게 해주 어도 죽고 낮게 해주지 못해도 죽는데, 각처 의원들도 못 고치는 이 병은 무 세 개만 진을 내서 먹이면 대번에 낫는 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남기고 조치원의 담 높은 그 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는 설정은 길가다 우연히 들은 터무니없고 너무 간단하기만 한 이 처방이 단순히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예사롭지 않은 중요하고 神異한 처방임을 암 시한다. 류의태에게 던져진 처방은 “무 세 개를 진을 내서 먹이라”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맵고 달으며 독이 없고 소화를 시키는 약재이다. 팽창과 적취를 치료한 다. 민간단방에서도 무는 여러 병에 유용하게 쓰였는데 다 음은 그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임산부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만청자를 가루 내고 물로 한 숟가락씩 하루 두 번 복용한다.⁴²⁾

속이 그득하고 가스 찰 때는 나복자 1홉을 찧어 부수어 물 에 달여 복용하는데, 소금, 된장, 짠 것을 꺼린다.⁴³⁾ 관란으로 복통이 있으며 구토와 설사가 같이 동반된 경우는 菁根汁이 또한 묘한 효과가 있다.⁴⁴⁾

큰 병 후 발하는 황달에는 무가 좋다.⁴⁵⁾

음부가 뒷박처럼 부었을 경우는 蔓菁의 뿌리를 빨아 봉해주 면 바로 낫는다.⁴⁶⁾

온 몸에 부종이 생길 경우는 씨를 뺀 나복과 浮麥을 같은 양 을 당에 담가 서 마신다.⁴⁷⁾

몸이 붓거나, 관란으로 복통이 일 때,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황달이 생겼을 때, 원인을 알 수 없게 몸이 부었을 때 유용한 처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설화 중 왕후의 몸 붓는 증상과 왕후가 무를 처방 받고 병이 모두 낫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래 가보이니까네 참 몸뚱이 집둥같이 붓아오르고 있다 말 이다. 마냥 보아, 그래 인자 그 뭐 아무도 기술도 없고, 아무 꺼도 없는데 인자 들은 배가 있거덩 인자. 들은 배가 있어서 그래 그때 한참 무시가 귀할 쯤데. 그래 참 진맥을 딱 해보 고, “무시를 세 개를 구할 수 없냐?” 이켄거덩. 그래, “하 이 무시 세 개를 구할 수 있다.” 이러카거덩. 그래 한 개를 이 자, 참 인자, 참 인자 진을 내서, 급히 진을 내서 먹인께, 부 은 기 좀 빠지거덩. 그래 두 개를 먹이께도, 세 개째 먹이께 네 확 낫거덩.

무 이외에도 우리나라 전통 약재로 몸이 붓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약재들이 있는데, 정력자, 대추, 螻蛄, 厚朴, 송이 버섯, 등이 있다.⁴⁸⁾

병증 5. 虫으로 인한 병

류의태 설화에는 환자로 나오는 처녀가 虫, 즉 지렁이, 뱀, 벌레 등에 의해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류의태 가 등장해 구원해 준다는 내용의 설화가 5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병에 대한 처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3편이 있어 병증과 치료원리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고 한다. 설화속에서 벌레가 처녀의 몸에 기생하는 경우 공통 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상을 고치

42)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四醫經驗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128. “小便不利, 蕪菁子末, 水服方寸匕, 日二.”

43) 위의 책. p.28. “蘿菘子一合, 搗碎, 煎服, 忌塩 醬 鹹.”

44) 申旻.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18. “霍亂腹痛有吐瀉者 … 菁根汁亦炒.”

45) 위의 책. p.386. “大病後發疸, … 又菖菘, 亦好.”

46) 李昌雨.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壽世秘訣.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19. “陰腫如斗, 蔓菁根, 搗封之, 卽治.”

47) 위의 책. p.70. “遍身浮腫, 用出丫子蘿菘 浮麥等分, 浸湯飲之.”

48) · 申旻.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127. “수천으로 혹 얼굴이 붓는 경우는 정력자(누렇게 붉는다)를 가루 낸 다음, 대추 10개를 진하게 달여서 대추는 버리고 가루 2돈을 타서 먹는다.(葶藶散 治水喘, 或面浮. 亭歷子炒黃 爲末, 大召十枚濃煎, 去召, 調二錢末, 服)”

·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意方合部.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35. “심하게 앓은 후로 붓는 경우 生薑껍질과 厚朴 동량을 달여 먹는다(生芋皮 厚朴等分煎服)”

· 위의 책. p.260. “온 몸이 부은 경우 늙은 松栴를 말려 2~3년 묵힌 것을 달여서 조금 먹고, 아주 따뜻한 방에 누워 닭털에 당액을 적셔서 온 몸에 바른다. 당액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한다.(松茸老者, 採乾二三年陳者, 煎飲小許, 而臥大溫房中, 以鷄羽蘸塗滿身, 以水盡爲度)”

지 못할 경우, 부모들의 대처방법도 모두 공통적인데 배부른 처녀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식이 불명예스럽게 살기보다는 억울하더라도 죽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조선시대의 정조관념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각각의 설화에서 병에 걸린 세 처녀의 증상이 담긴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a. 그리 인자 딸에 대해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 무고한 배가 불러 올라가 동네 사람이, ‘아 뱀다, 곧 놀을 달이 다 됐어. 다 됐는데’ 그러이 아무리 물어도 ‘그런 사실 없다’ 이카고, 그래서 내가 하도 이 그 저기 우리 대강 위치에 있어 가주고, 참 가운 문제로서 저 연을 내가 오늘 밤에 칼로 기릴 작정을 했는데, 손이 와 가주고 몬하게 됩니다.”⁴⁹⁾

b. 서가집 딸이 상사병에 걸린기라. 어떤 상사병에 걸렸느냐 할 것같은 처녀하고 총각하고 좋아지내는 것도 없는데, 상사병에 걸리자주고 뱀이 몸덩이를 감고 살에 뱀이 대갈뱀이가 나와. 그런께 이 처녀가 즈가부지한테 즈거마한테 이야기를 해가주고 내가 이런 병을 지냈으니 어짜든지 병을 낫아 돌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⁵⁰⁾

c. 서울에 김판서가 있었는데 아들 형젠데, 별당이란 딸이 있는데 나이 18세라 신랑을 구할라카이 상하불급이라. 고마, 딸이 배가 불러져, 엄청시리 부린데 가잡거든. 머리를 작두로 끊고 집구석이 망할 판인데 이전에 류의태란 의원을 찾았어. 이 양반이 모리는 기 없어. 부르이 왔다. “아 뱀가 보라.”⁵¹⁾

병증은 첫째, 무언가를 잘못 먹어 기생충이 생겼을 경우와 둘째, 소변을 보다가 병균에 감염되었거나, 벌레가 들어간 경우로 집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각 설화에서 병이 낫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인데 이 처녀들의 병증이 기생충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다.

a-1. “동정이 있거들랑 말하라.” 수십 분 있다가 하이, 속에서 머가 싹 빠져 내려오거든.“그 동정이 있습니다.” 그이, 머 그 처녀는 마 싹 빠져내려온 뒤로는 마 의문가운 해가 (정신이 아득해서) 모리고, “저 안방으로 모셔 드려라.” ... 그러이 인자 그 기름 솔을 갖다가 발을 확 헹궜다. 학시이(들추니) 머 거시이(지렁이)가 마 한 솔 빠져 죽어가 있그던⁵²⁾

b-1. 그래 이 처녀가 땀을 출출 흘리고 한 특발 다 목더마는, 그날 저녁에 밥을 시켜 묵고 자는 판인데, 그 하문에 상

사병이 걸린 그 배암 대가리가 녹아서 빠지는기라. 녹아 빠지다보이 옷이 힘뻑 젖고 방바닥이 축축하고 한강이 된기라.⁵³⁾

c-1. 아침에 일어나이 벌레가 한 바지기, 한 소구리가 나와.⁵⁴⁾

기생충에 관하여 『동의보감』에서는 虫門이라는 항목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긴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거나 비린 회나 날것, 찬것을 많이 먹어 積이 된다. 이것이 오래되어 열이 생기고 습열이 훈증하여 痰이나 어혈이 뭉쳐 오행의 기를 따라서 변화하여 여러 가지 기괴한 형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충은 아홉 가지가 있다.⁵⁵⁾

기생충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슴을 답답하고 그득하게 하며, 기침·구토·딸꾹질과 嘔雜을 생기게도 한다고도 하였다. 또한 진흙·숯·생쌀·차·소금·생강·천초를 먹고 싶게 만들며 침을 많이 흘리게 하고,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게도 하며, 대장에 사는데 많으면 치질이 되고 심하면 癩癰·疥癬이 된다고 하기도 한다. 이밖의 류의태 설화에서도 충병에 걸린 사람이 기름만 먹으려고 한다거나, 하문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이 보이기도 한다.

이때 류의태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된 처방은 각각 달라 세 가지인데, 설화 a에서는 “참기름 땀”을, 설화 b에서는 “산돼지가 천년이 돼가주구 호랭이한테 잡혀먹히다가 남은 것을 아주까리대로 땀 것”을, 설화 c에서는 “천리밖에 절로 죽은 노루고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생충이 몸속에 생겼거나, 벌레가 몸속에 들어갔을 때 민간단방에서 어떤 방법으로 병을 치료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생충 치료를 위한 처방들을 민간단방에서 발췌한 것이다.

49)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1책. p.194

50) 류의태와 상사병 처녀. 구연자 : 정몽룡.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유평마을.

51)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4책. p.202.

52)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1책. p.196.

53) 류의태와 상사병 처녀. 구연자 : 정몽룡.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유평마을.

54)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4책. p.204.

55)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三 “諸蟲皆因飲食不節, 或過飧腥膻生冷, 以致積, 久成熱, 濕熱熏蒸, 痰瘀凝結, 隨五行之氣變化, 而爲諸般奇怪之形, 其名有九.”

기생충에 의한 심통은 참기름에 소금을 넣고 볶아서 뜨겁게 1잔 복용한다.⁵⁶⁾

기생충이 깨물어 갑자기 상복부가 아픈 경우는 참기름을 따 뜻하게 단번에 복용한다.⁵⁷⁾

『동의보감』에서도 기생충으로 짐작되는 병에 약들을 참기름에 타서 먹이는 처방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또한 ‘湯液篇’에도 “흰 참깨 기름은 三焦에 있는 熱毒을 내리고 大小腸을 통하게 하며, 골수를 미끄럽게 하는데 脾臟에는 부담을 준다. 蛔心痛을 치료하고 모든 충을 다 죽이며, 또한 모든 헌데와 움·버짐에도 바른다. 참깨를 짓찧어 눌러서 기름을 짜는데 생것으로 짠 것은 약용으로 쓰고, 볶아 익혀서 짠 것은 식용으로 쓴다. 일명 香油라고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설화 b에서 치료로 쓴 “돼지고기”가 민간단방에서 기생충 치료에 쓰였던 기록을 찾아 발췌한 것이다.

기생충으로 생긴 통증은 돼지고기160g을 얇게 썰어 검정콩가루8g을 버무려 공복에 먹는다. 다 먹으면 기생충이 대변으로 나온다.⁵⁸⁾

회충에 걸렸을 때 가재[石蟹]를 많이 잡아서 소금을 넣고 볶아서 둔 다음 돼지고기를 그 앞에서 구워서 돼지고기 냄새가 스며들도록 한다. 돼지고기 구운 것을 먹고 가재를 연달아 먹으면 좋다.⁵⁹⁾

돼지고기는 『동의보감』에서 ‘豚肉’이라 하는데, 성질이 차고 맛은 쓰며 약간의 독이 있고 열을 풀어주는 데 쓰인다. 그 중 돼지기름은 ‘豚肪膏’라 하는데 피부를 좋게 하며, 고약으로 만들어 손에 바르면 손이 부르트지 않는다. 온갖 약창이나 응저, 살충하는 데 주로 쓰며, 돼지의 쓸개도 충을 죽이는 데 쓰인다고 한다. 『동의보감』 ‘虫門’에서도 諸物變蟲이나, 회궤로 인한 병에 돼지기름이나, 돼지고기를 여러 약재에 섞어서 자주 사용하였으니 이 처방이 민간단방에서나 전문의서에서도 실효했던 처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기생충에 의해 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추측 이외에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다가 벌레가 몸속에 침투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화 a와 c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a-2. “열달 전에 저 소매(소변) 보러 가다가, 어디 변소까지 못하고 중간에 이데 소매 본 일이 없나?”가마 생각하이, 연당 가에 가 한 번 눈 일이 있거든. “그 장소가 어디냐?” 어

디라고 그러이, 그러이 인자 장정 둘이 인자 창을 치어 가지고 인자 대비시켜 나 둔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거라. “이, 여길 찌르라.” [장판을 손가락으로 찌르며]그래 마, 둘러서 마, 전체를 인제 창을 가 찼렀다. 찌리이(찌르니) 인제 마 별건 피가 픽 올라오는데. “여 소금을 헌치라(흘려라).” 거 소금을 헌치이, 피가 딱 끊어지는데. “여기 파라!”이카거든. 파이, 바보 글은(겉은) 거시(지렁이)가 말이이 창에 찔려 가지고 나자빠져가 있거든. 그러이, 여자들이 말이야. 그 저기 지망지망이(함부로) 저 소매를 못 본다 카는 기, 그제 원인이 있단다. 저 놓이 음기를 풀 직에 저기 인자 소매 머시를 타고 올라가며 그런 예가 있다.⁶⁰⁾

c-2. 그 원인이 우예됐노 하이, 처자가 연당 앞에 노송남게가 서 있는데 땅에 오줌을 누다 벌레가 들어가서 그래됐어. 배가 툭 꺼지고 완쾌 됐어.⁶¹⁾

즉, 처녀가 뒷간에서 불일을 보지 않고,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았다가 지렁이가 침투했다는 것이다. 이 세 설화는 몸가짐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의 반영이며 여자들이 소변을 함부로 아무데서나 보면 안 된다는 경계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다음은 벌레가 몸속에 들어간 경우 사용되었던 처방들이다.

귓속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는 참기름을 흘려 넣고 귓구멍이 바닥을 향하게 하면 (벌레가) 참기름과 함께 흘러나온다.⁶²⁾

여러 벌레에게 물린 경우 참기름을 바른다.⁶³⁾

귓속에 蜈蚣이 들어간 경우 구운 돼지고기로 (귀를) 덮으면 바로 나온다.⁶⁴⁾

蛔蟲이 귀에 들어간 경우 杏仁을 진흙처럼 찧어서 참기름을

56)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意方合部.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06. “香油鹽熬, 熱服一盞.”

57) 위의 책. p.208. “眞油溫頓服”

58) 위의 책. p.202. “黑豆末每二錢, 猪肉四兩薄切, 搗藥末空心食, 盡則蟲卽下.<杏>”

59) 申曼.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30. “石蟹多捉多入鹽炒而置之, 猪肉炙於前聞其臭, 食其肉繼食石蟹則爲好”

60)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1책.

61)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4책.

62) 申曼.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199. “耳中蟲入 … 眞油灌之, 側耳則同眞油流出.”

63) 위의 책. p.265. “諸蟲咬, … 香油塗之”

64) 위의 책. p.200. “耳入蜈蚣, 炙猪肉掩之卽出.”

널고 귀에 떨어뜨려준다. 구더기가 나오지 않으면 저절로 죽는다.⁶⁵⁾

모든 총은 참기름 1홀, 달걀 2개, 망초 1냥을 고루 저어서 먹으면 총이 곧 나온다.⁶⁶⁾

벌레가 몸속에 침투된 경우에 돼지고기를 먹는 경우는 찾지 못했으나, 돼지고기나 비계를 덮거나, 참기름을 이용해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설화 b의 치료 약재로 등장한 노루고기는 쉽게 찾기 힘든 약재를 처방에 써야하는 [효성의료담]의 설화 특성상 일반 백성들이 평소 거의 구하기 어려운 재료를 찾는 과정에서 노루고기가 채택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III.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에 대한 의미

지금까지 류의태 설화에 나타난 병증과 치료원리를 한의학적으로 접근하여 실제 치료에도 실효성이 있는 처방이었던지를 확인해 보았다. 설화의 처방과 관련하여 비교한 의서들은 조선시대에 많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舟村新方』, 『壽世秘訣』, 『別抄單方』, 『醫本』, 『丹谷經驗方』, 『四醫經驗方』, 『意方合部』, 『袖珍經驗神方』에서 관련성을 찾아보았다. 설화구전자는 대부분 전문의서를 접해볼 수 있는 명 의들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민간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민간단방이 많이 적혀있는 의서들을 위주로 검색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설화 속 병증 처치가 당시 민간단방과 접합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의미를 병증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병증1. 天門瘡 : 설화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천문창은 머리에 생기는 瘡腫인 禿瘡이나 癩頭瘡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사용되는 처방으로 落飯食壁上土 즉, 벽의 흙과 쌀 혹은 누룩이 등장하는데 여러 의방서에 쌀과 흙이 瘡腫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설화담군 중에서 류의태 설화에 유독 이와 관련한 병증을 치료한 것을 주제로 한 내용이 많은 것은 그가 瘡腫 치료에 능했던 인물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 낙반식벽상토가 당시 비록 민간단방에서 실제 쓰였

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한편으로 지배계급의 치료에 낙반식벽상토, 코딱지, 쌀밥 등 매우 하찮은 재료들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지배계층에 대한 민간인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의로책이 존재하긴 했지만 유명무실하여 백성들은 거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실정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원망의 표출이 민담이나 야담, 구전설화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류의태가 치료한 천문창 환자가 모두 지배계급이라는 점은 당시 속종시대에 御醫를 지냈던 인물⁶⁷⁾이었던 그의 의학적 명성을 드러내려는 구전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병증2. 產後風 : 콩나물과 대두로 만든 두릅주는 산후풍에 유용한 약재로 종종 쓰인다. 설화속에서 대나물이라든지 비너나물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콩나물이 산후풍에 좋은 처방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콩나물 같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재를 처방하여 줌으로써 병의원을 접하기 힘든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했던 그의 의료인적 면모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한 환자들이 설화내용 속에 등장한다. 류의태 설화에 난산과 낙태(8편), 처녀의 부인병(4편), 산후 후유증(4편) 등을 주제로 한 설화가 많은 것은 그의 주된 의료과목을 짐작케 하며, 당시 사회에 생명에 대한 민생들의 본능적인 염원과 경외감, 그리고 난산, 난치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음도 알 수 있다

병증3. 눈병 : 눈병의 치료에 鏡面朱砂로 즉, 朱砂가 약재로 등장한다. 설화속 눈병은 역귀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사는 본래 잡귀를 몰아내며, 혼백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일체의 눈 질환에도 약재로 쓰이는 재료로 쓰인다는 것이 의방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각색이 있긴 하나, 설화의 처방이 사실적인 의학적 바탕으로 그 처방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은 기록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류의태의 名醫로서의 면모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외에도 류의태가 역귀나 잡귀를 몰아내는 주제가 담긴

65) 李昌雨.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壽世秘訣.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167. “蛆蟲入耳, 杏仁, 擣泥, 取油滴入. 非出則自死.”

66)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別抄單方.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37. “脂麻油殺一切蟲, 取油一合 鷄子二介 芒硝一兩, 攪(攪)勻服之, 蟲即下.<種杏>”

67) 『醫藥同參聽先生案(조선시대 의약동참 어의(御醫)명부)』, 요령도서관

설화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역귀는 병의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나, 죽음에 이르게하는 난치병을 역귀로 형상화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설화에서 류의태는 역귀로 인한 병을 치료함으로써 名醫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곤 한다. 이는 역귀도 극복시키는 재능을 가진 名醫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구전자의 의도로 보이며, 류의태가 자신들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엿볼수 있다.

병증4. 몸이 붓는 병 : 설화속 지체 높은 왕후의 다리 붓는 병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무 세 개를 달여 먹이고 낮게 했다는 점, 그것이 실제 의학적 처치에 유효하였다는 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병의 약재가 지배층인지 하층민인지에 관계없이 똑같이 쓰인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구전자의 의도이고, 다른 한가지는 병을 치료할 약재가 많지 않던 많던 당시, 병증1의 치료약재인 ‘낙반식벽상토’, ‘콩나물’, ‘쌀밥’과 함께 실제로 일반적으로 구해볼 수 있는 약재부터 희귀한 약재들 까지, 다양한 약재들을 치료에 시도해 보려했던 당시 의료인들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병증5. 虫으로 인한 처녀들의 병 : 이 병은 처녀들이 소변을 보다가 병에 감염되었거나,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류의태 설화에 치료방법으로 쓰인 참기름과 돼지고기가 실용 의방서를 통해 여러 벌레들의 치료와 기생충 치료에 종종 쓰였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같은 주제를 지닌 류의태 설화에서 여성의 하문병의 병을 일으키는 것은 지네, 지렁이, 종류를 알 수 없는 벌레, 뱀 등이다. 환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고귀한 처녀라는 범위 내에서 처녀, 공주, 판서의 딸, 양반의 딸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를 치료한 류의태가 부자가 된단든지 고쳐준 처녀와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여성의 몸가짐을 중요시하던 당시 드러내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매우 어려운 병인 여성의 하문병을 고쳐준 대가에 합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설화들에서는 여자들이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는 당시 유교주의적 관점과 여인이 소변을 함부로 아무데서나 보면 안 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경계를 담고 있다.

IV. 결론

의료설화의 출현은 의원에 대한 관심의 대두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은 임병양란과 이상기후로 인해 기근과 역병의 발생이 빈번하였다. 특히 기근과 위생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면역력의 결핍은 풍질·역병·구토·두통·눈병·부인병·긋병 등 여러 질병을 만연시켰고, 심하면 사망을 초래하는 종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쟁의 참화보다 컸다. 국가적 차원의 의료제도와 구료 책은 존재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하여 백성들은 거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어갔다. 백성들은 민중들을 위해 헌신하는 醫人을 바라고 되었고, 명의의료담이 탄생했던 것이다.⁶⁸⁾ 허준의 스승이었던 류의태에 대한 명의의료담도 이 시기에 많이 등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⁶⁹⁾

본 연구에서 제시한 류의태 의료설화속 다섯 가지 병증과 처방 모두가 실제 한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색을 통해 지어졌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물론 이외에도 류의태의 다른 설화에서 처방이 자세하지 않거나, 장기 돌을 삶아 먹이는 등 해학적인 처방이 등장하는 경우도 보이지만 적어도 처방이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 처방이 실제로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창중, 난산 및 산후풍, 벌레에 감염되어 몸이 붓거나 질병에 걸리는 병이 유행했으며, 당시 백성들에게는 치료하기 쉽지 않은 난치병으로 인식되어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당시 약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민중들의 절박한 상황도 반영되어 있는데 류의태 의료설화에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마 실제 당시 흙이나 코딱지 등 많은 재료들이 약재로 시도되었을 것이다. 또한 쌀밥, 참기름, 콩나물, 무 같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약재로 사용한 것은 치료약을 구하기 힘든 서민에 대한 의료인의 배려도 엿볼 수 있었다는 점도 이번 연구의 성과로 볼 수 있겠다.

⁶⁸⁾ 권익숙, 한국의료설화연구. 동의대 박사, p.151.

⁶⁹⁾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지. 2009. 16. p.409.

V. 참고문헌

<논문>

1. 강진옥.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1983.
2. 김명수. 구비명의전설 연구. 경북. 경산대학교 석사. 1997.
3. 이지연.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경남. 인제대학교 석사. 2007.
4. 박수진, 이선아, 안상우. 광항정기산에 얽힌 허준 설화.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5. 이경희. 문헌에 나타난 명의 설화의 유형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6. 광의숙. 한국 의료설화연구. 동의대학교 박사. 2008. p.151.
7.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지. 2009. 16. p.381, 409.
8. 유대식. 누룩 미생물의 문헌적 고찰-1945년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25(1). 1996.

<단행본>

1. 許浚. 諸瘡. 雜病篇 卷8. 東醫寶鑑.
2. 許浚. 土部. 湯液篇 卷1. 東醫寶鑑.
3. 許浚. 穀部. 湯液篇 卷1. 東醫寶鑑.
4. 許浚. 神. 內經篇 卷1. 東醫寶鑑.
5. 정몽룡 口演. 류의태와 상사병 처녀.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유평마을.
6.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1책. pp.186-201. pp.194-196.
7.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4책. pp.204-206.
8. 申旻.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舟村新方.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101, 127, 199, 200, 206, 218, 219, 230, 241, 244, 256, 265, 305, 349, 386, 398, 399, 405, 446.
9. 李昌雨.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壽世祕訣.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34, 70, 101, 154, 158, 160, 161, 167, 219, 228, 279, 316.
10.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意方合部.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54, 202, 206, 228, 235, 260, 312, 316.

11.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別抄單方.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 20, 37.
12.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丹谷經驗方.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7.
13. 未詳. 안상우 外 6人 共譯. 國譯 四醫經驗方.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8, 128.
14. 최문석.[생활속의 육십갑자]경자신축 벽상토. 생활속의 이야기. 2007. 2.
15. 김정룡. 기타 간질환. 간박사가 들려주는 간병 이야기. p.41.

<기타>

1. 이연월. 이연월 교수의 한방이야기-돼지고기. 대전일보. 9월 3일.
2.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상세정보 DB.
3.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Available from: URL: <http://lib.aks.ac.kr/Web/>
4. 안상우 外.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index.jsp>
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DB. 『壽世寶訣』해제. URL: <http://www.jisik.kiom.re.kr>.
6. 경면주사. <http://100.naver.com/100.nhn?docid=143562>. 2010. 1.